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의 과제와 기능*

- 독일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 홍 진**

목 차

1. “보비(補裨) 학문”으로서의 인문학
2. “기여(寄與) 학문”으로서의 인문학
3. “비판(批判) 학문”으로서의 인문과학
4. 결어

우리가 문턱에서 넘겨다 보는 21세기 사회는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욱 발달하고, 이를 응용한 사회의 정보화가 가속화 되리라는 전망은 이제 보편화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상상할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변화와 변천을 우리는 몸소 겪게 될 것이고, 그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향(定向)을 해서 인간답게 살수 있을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적어도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삶을 성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가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더욱 합리화된 작업과정을 체험하게 되고, 상품의 대량생산과 규격화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로 인해 개인에게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인간의 성향이 편향화되며, 심각한 인격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사회가 생존전략으로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내세워 자연과학에 대한 무분별한 확신이 높아 가고 있는데 반해, 인문학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심지어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계기로 근래 우리학계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꼽을수 있는 것이 학문론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인문학에 대한 논의의 확산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논란과 토론이 있어왔고, 지금도 어디에서인가 우리와 병행해서 인문학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 이 글은 숭실대학교 개교 101주년 기념 인문고학연구소 학술발표회(1998. 10. 29.)에서 발표된 것임.

** 숭실대 독문과 교수

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70년대와 80년대에 독일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인문학의 과제와 기능에 대한 담론들을 섭렵(涉獵)해 보고, 그 연장 선상에서 앞으로 닥아 올 21세기에 우리사회의 인문학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논거(論據)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보비(補裨) 학문”으로서 인문학

독일의 철학자 오도 마야크바르트 (Odo Marquard) 는 1985년 서독대학 총장회의에서 행한 “인문학의 불가피성”¹⁾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앞으로 닥아 올 시대를 보편적 현대화의 사회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의 현대적 성격은 실험학문인 자연과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추진하는 현대화는 어쩔수 없이 인간삶의 각 분야에 손실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실험학문인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하면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면 실험자를 바꾸어야 하는데 실험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대체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실험결과를 낚조할수 있는 주관적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어, 종교, 문화, 가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이 다른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는 인공적으로 인간을 실험가능하고, 대체될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 인간이 방법상으로 자신의 특성이나 개성을 포기할수 밖에 없고, 실험을 하는 학자의 역사적 출신세계, 예컨대 종교의 전통같은 것이 이른바 “중립화(中立化)”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마야크바르트의 주장이다. 현대의 학문은 학자의 삶에 속하는 역사의 전통을 중립화 시키고, 방법적으로 출신의 역사성을 포기케 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정확한 실험학문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험학문은 나름대로 위험을 안고 있는데, “현실상실”의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삶의 세계에서 인간은 어느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상물이 되고, 기계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산업생산품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로 가늠되는 상품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자연과학이 추진하는 현대화는 인간성상실을 부추기고 끝내는 인간이 사물로 전락하는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사물의 이치로 보아 상실은 보충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고 자연과학이 초래한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마야크바르트는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현대화의

1) Odo Marquard: “Über die Unvermeidlichkeit der Geisteswissenschaft”. In: Marquard: Apologie des Zufälligen. Philosophische Studien. (=Reclam Universal-Bibliothek Nr.8351) Stuttgart 1986

적이 아니고, 전통을 보존 시켜줌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현대화를 버틸수 있게 하고 현대화로 인해 생기는 모자람을 덜어주는 이른바 補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생소해지는 전통세계와 다시 친숙해 질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으로 생소해 지거나 잊혀진 역사를 되 찾아 주기 때문이다. 역사는 서술됨으로서 보존되고 후세의 기억에 남게 되는데, 서술을 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이다. 인문학은 서술을 함으로서 현대화가 빚어내는 손실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바르트는 인문학이 3가지 종류의 역사를 서술한다고 구분한다.

첫째는 감수성의 역사서술이다. 현대화된 사회엔 불가피하게 “매혹(魅惑)”의 상실이나 나타난다. 매혹상실은 미학의 대리 매혹을 통하여 보충된다. 이전에는 독립된 예술로서 미학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대화로 인해 인간에게 미적 감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인문학은 감수성의 역사서술을 통해 이 미적 감각의 보충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역사보전의 서술이다. 현대화는 인공화 즉 탈자연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고, 또 사물화 즉 탈역사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현상은 자연풍경의 발견에서부터 자연보호에 이르기 까지 자연감각의 발달을 통해 상쇄되고, 역사유물 보존과 같은 역사감각의 발달을 통하여 보충된다. 박물관의 건립이나 문화재 보존 관리는 역사보전의 노력으로 평가 될 수있고, 인문과학은 역사보전을 서술함으로써 역사감각이나 환경보호의 의식이 생기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에서 서술하는 역사는 정향의 역사이다. 현대화는 인간에게 역사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케 한다. 그러나 방향감각의 상실은 자기고유의 전통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전통, 인문주의전통, 한국의 전통의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자기고유의 역사전통과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고유역사와 전통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가 현대화 되면 될 수록 서술하는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절실히 필요하고, 인문학은 현대화를 추진하는 자연과학의 보비 학문으로서 여전히 인간의 현실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마이크바르트의 인문학의 기능에 대한 기술은 그의 스승 요아킴 리터 (Joachim Ritter)의 명제를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알수 있다. 리터는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의 과제”²⁾라는 글에서 새로운 사회의 특징을 추상성과 역사부재라고 규정한바 있다. 현대화된 사회가 지나게 될 추상성과 역사부재는 결과적으로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회가 역사의 부재

2) Joachim Ritter: Die Aufgabe der Geisteswissenschaft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Ritter: Subjektivität. 6 Aufsätze (=Bibliothek Suhrkamp 379) Frankfurt/ Main 1974

를 보상하고, 그 사회를 위하여 역사와 정신의 세계를 열어 놓고, 기억에 간직할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補神論”은 인문학에 대한 일련의 사회론적 이해를 전제로하고 있다. 사회란 여기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과정, 그 구조와 운행에 누구도 영향을 미칠수 없는, 또는 적어도 인문과학은 영향을 미칠수 없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운명적이라 할수 있다.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인데, 그 발전은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인문과학은 사회의 전통 보전과 사회발전의 올바른 정향을 사회의 발전과와 병행해서 또는 가급적 현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 낸다. 이와같은 補神論의 대학 정책적 입장은 따라서 학문의 실제성격을 강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요구와는 무관하다. 리더는 여기서 훔볼트(Humboldt)의 “상아탑” 발상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와같은 구상의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의 분리, 비정치적 학자와 정치적인 사람의 분리등이다. 이처럼 인문학은 공전하는 사회에 의미와 定向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의미부여와 정향은 어디까지나 정관적 이다. 사회의 구성원은 그들이 원할 때 이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적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도덕성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교육되며, 대체로 그럴 경우에는 오직 개인으로서만 자신의 주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리더와 마아크바르트가 여기서 규정하는 인문학의 과제는 오늘날 많은수의 인문학자들의 견해나 자체이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인문학의 기능정립에 대한 이론적 태두리가 정해진 것은 좀더 역사가 깊다. 이들은 독일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사이에 나타난 독일 이상주의 예술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셰익스피어와 영국의 민요를 발견하고, 최초로 근대 역사이론을 구상한 헤르더(Herder), 그리스의 예술을 자신이 살던 시대가 추구하던 통일의 표상으로 수용했던 뵙켈만(Winckelmann). 이들은 오늘의 인문학의 아버지로 인정되고 있으며, 18세기에 그들이 최초로 수행한 역사와 타문화(他文化) 창조물의 연구는 현대 문명의 폐단에 대한 처방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헤르더는 추상성을 현재 문명의 부정적 특성으로 보았고, 그 추상성에 대해 셰익스피어 문학과 민요의 충만한 감성과 풍성한 정취를 지적하면서 이의를 제기 하였다. 또 다른 문학가를 예로 들자면, 쉴러(Schiller)는 분열과 소외를 자신의 시대의 문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그리스 문화의 통일성과 친근감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헤르더, 뵙켈만, 훔볼트, 쉴러, 괴테(Goethe)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과거의 역사와 외타민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의 병폐에 대한 대응수단이고, 치료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이와같은 철학적 과제를 부여할수 있는 상대로 어디까지나 개인을 염두에 두고있다. 개인, 독립된 인간에게 역사와 문화 즉, “정신”과의 만남에서 자기자신속에 토막나지 않은 자율적인 현존, 진정한 휴머니티를 위한 척도를 개발

할것과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추상성과 소외에 맞설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역사와 미학적 문화와의 만남을 통한 개인 교육의 방안은 18세기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기능을 가졌었다. 그당시의 관건은 봉건사회에서 전래된 계급구조에 대항하여 대체적으로 개개인을 위한 정신적 교육에 대한 욕구를 처음으로 관철시키고, 개인의 자유권과 자아실현의 권리를 처음으로 입증하고, 계발하는 것이었다. 그당시만 해도 우리가 오늘 다 아는 대로, 개인을 문화적으로 교육시킴으로서 시민사회를 서서히 인간화 할수있다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어쩌면 환상에 지나지 않는 희망들이 아직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18세기 독일의 이상주의 철학의 교육욕구와 역사이해는 정치적 투쟁개념이었다. 오늘날의 인문학의 선구자들은 역사에서 반대를 위한 힘과 논거를 끌어 내었고, 예술에서 그들의 새롭고, 평등한 인간상의 척도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방안의 사회적 기능은 빨리 퇴색되고 말았다. 개인이 교육을 받은 자로서 사회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려는 애초의 사회 문화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는 그의 실제적 성격을 잃고 계급을 구분하는 지배권 안정화로 타락해 버렸다. 역사와 문화교육은 개인의 정관적 활동이 되어 버림으로서 사회 발전 과정을 비판하는 기능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인의 교육이 사회 발전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수 없게되자, 결과적으로 역사와 문화 교육, 즉 인문교육은 사회발전이 가져오는 폐단을 지양하고 보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인문과학의 이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세기 근대 인문학의 창설자인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독일 관념주의와 연계시킨 것을 발견할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문학적 자기해석은 잘못이 없지 않다. 19세기에 있어 인문학의 우세는 계몽주의 사고가 가졌던 비판적 역량의 상실과 인문학과 시민적 민족국가의 결탁의 대가로 얻어 진 것이며, 역사과정이나 사회과정에 대한 인문학의 무력함의 대가로 얻어 진 것이다. 인문학자들이 그에 대하여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과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작업과 교육작업은 두 개의 세계대전과 파시즘을 막을수가 없었다. 인문학은 여러모로 전쟁에 대한 열광주의와 민족주의에 헌신했던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와같은 역사적 과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술과 경제의 문명화 과정이 인간의 유래와 인도적 역량을 이전 어느때 보다 더욱 크게위협하고, 기술과 생산과정의 자동화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수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이 더욱 커진다면, 인문학의 補裨적 기능은 이같은 피해를 막는 조치로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충분치 못함을 확인하게 된다. 인문학은 이와같은 경감된 사회적 기능할당에 대하여 반성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때 누렸던 실제적이고 비판적 과제를 변화된 역사적 상황에서 새롭게 성찰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2. “기여 (寄與) 학문”로서 인문학

인문학의 과제와 기능을 補裨로 규정하는 것은 오래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널리 알려진 생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알게 모르게 이 이론을 모델로 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서독대학교 총장회의에서는 발제자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분명하게 인문학의 보비적 기능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전 자유백립대학 총장을 지낸 문예학자 에버하르트 래머르트(Eberhard Lämmert) 교수이다. 그는 마르크바르트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면서, 인문과학의 과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³⁾

래머르트는 현대사회는 근본적으로 실험하는 자연과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산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로 보고 있다. 산업생산의 특징은 대량생산이요, 측정이 가능하고 확실적인 형태를 지니며, 산업생산이 지니는 이와같은 본래 성격은 자연과학의 의미와 유용성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다. 산업의 규격화는 역시 래머르트의 생각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 생활을 추상화하고 협애화 한다. 이를 문화비평적으로 극복하기위하여 그는 역사에 정향한 인문학이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보고 이른바 “寄與論”을 제기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해결에 인문과학이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자연과학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라던가 정보기술의 발달이 문화학문에 제시하는 도전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래머르트의 기여이론은 사회에 대하여 마르크바르트의 보비이론과는 다른 것을 함의(含意)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란 제 나름대로 굴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철두철미 영향을 줄수 있는, 심지어 인문과학의 영향도 받는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회적 과정에서 인문과학도 실제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보비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래머르트는 인문과학의 보비적 성격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결국 이 성격은 공휴일과 평일의 관계와같은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인문과학은 이와같은 과정속에 뛰어들어 그들만이 할수 있는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통하여 사회 발전과정에 협조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학문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자율의 입장이 아니고, 참여의 입장이다. 래머르트의 역사관에 따르면, 교양시민적 자율프로그램은 과거에 속한다. 오늘날의 인문과학의 과제를 전통의 재수용에서 보다는 현대적 산업사회 내에서의 그의 위상에서 찾고 있다.

3) Eberhard Lämmert: “Geisteswissenschaften in einer industriellen Kultur”. In: Anspruch und Herausforderung der Geisteswissenschaften. Westdeutsche Rektoren-Konferenz. Jahresversammlung 1985 (Dokumente zur Hochschulreform 56/85). Bonn 1985

래머트트가 여기서 산업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 인문학의 기능을 실용적인 낙관주의에 입각해서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낙관론의 이론적 근거는 래머트트가 사회적 과정의 성격은 그의 기술적 표면의 특징, 즉 대량생산에서 도출할 뿐, 그 배경에 있는 기업과 자본의 생리와 이해관계를 도외시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지적한다. 래머트트의 낙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의 인문과학의 위상과 과제에 대한 정립은 인문학의 과제를 규정함에 있어 선진산업사회와 관련을 짓고 있어 오도 마크바르트의 이론 보다 생산적인 관점들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는 인문과학을 정관적 보비로서 이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여로 이해하면서, 인문학도들을 위해 실제적인 과제와 인문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인문학은 고도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확대되어 가는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 폭넓은 기억내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와같은 기억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숙달이 필요하다. 인간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배우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약 40여년간의 직업활동 기간에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시절에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사태에 대비하려면 학생과 성인들은 많은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그것도 보다 높고 복합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자연과학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적 독립성과 양자택일의 사고는 그들의 인격과 재능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곳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창조력과 상상력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은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같은 별도의 과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이론적 표준의 현 수준에서 중심교육과목을 통해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모순을 학교내에서 경험하는 것도 능력배양에 속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컴퓨터의 찬성자와 훈련사와만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비판자와 정보기술의 도구적 사고에 반대해서 인문과학의 의사소통행위와 관련된 그리고 해석학적인 사고의 편을 드는 사람과도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인문과학을 위한 교육과제와 병행해서 자격영역에도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임박한 정보기술의 확산은 학교에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간의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균형을 흔란에 빠뜨릴 것이다. 도구적 사고와 해석학적 사고가 남녀학생들에게 있어서 분리되는 대신 서로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방법으로 새롭게 균형을 유지시킬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교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전망을 지닌, 인문학자를 위한 학제간 연구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인문과학은 고도산업화된 사회에서 노동상황의 연구와 편파적 행동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문화 창조의 활동에 대한 기대수요를 실습과 음악활동으로 커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박한 생각이다. 좀더 많은 정보와 활기 있는 연구활동에 바탕을 둔 사회는 인문과학이 참여하고 전달하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의 현 역사이론의 수준에서 좀더 수준 높은 여가상품도 만들어야 마땅하다. 일상적 문화 영역은 개별적 자율속에서 조정되고, 공공기구나 시설기구의 보조나 주도없이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또한 소박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시간의 영역이 곧 사회가 정보사회로 발전됨을 통하여 매체산업의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광범위한 의미의 각종 사회처방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벌써부터 좀더 수준높은 성인교육과정과 뮤직테라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교육기관의 수가 수요를 충족시킬수가 없다. 많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는 문학치료사의 직업도 있을수 있고, 연구 그룹이나 역할담당그룹이 형성될수도 있으며, 시립극장협회는 강연회나 독서과정, 해설과정 등을 설립해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려 할수도 있을 것이다.

3. 사회의 제반 갈등을 다룸에 있어 비 강압적 태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문학과 인문학자가 필요하다.

청소년문제,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수 있는 문제는 인문학의 기여 없이는 쉽게 해결될수 없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수년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하여 중부 유럽 도시에 소위 청소년 혁명으로 발전해 간 소요는 다수의 청소년 노동자들과, 심층심리학자, 청소년 심리학자, 법률인, 출판인등과 같이 여러 전공분야의 인문학도들의 원인에 대한 솔직한 지적이 없었다면, 의회나 여론들도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성운동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수의 가부장적 사회의 역사와 그 사회의 억압의 메카니즘의 형식과 본보기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운동으로 독자적인 인문과학을 탄생 시켰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기존의 갈등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데에만 국한될 수 없고, 빠르게 변천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정향방법을 고안해 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보다도 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그와같은 구상을 관철시킬수 있는 상태로 까지 이끌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문학은 지금보다 자기실현에 대한 자체상상과 공공사회에서의 인간의 공동생활을 적극적으로 대변할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할 것이다.

4. 고도 산업사회의 내력을 설명하고, 역사의식을 고취 시키며, 타문화에 접근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하여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문학, 특히 문학의 상황규정을 위해서는 많은 언급이 필요치 않은 점이다. 왜냐하면, 이 점은 독일 문예학의 전통적 자기 이해에 제일 먼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관점을 특별히 상기시킨다면, 역사의식에는 과거의 업적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제약과 범죄도 속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독일 고전주의연구는 예술의 독립성과 보편적 인생관의 역사적 조건이나 계급 특수성의 조건을 밝힐 것이며, 파시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파시즘의 부활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5. 과학기술의 프로젝트와 고도산업화된 경제적 발전은 통제와 비판을 위해 인문학과 인문학자들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점에 대한 첫 번째 예는 이미 수없이 논의된 것이긴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개별 연구자의 독덕성 문제라기 보다는 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밖에 들 수 있는 예로는 통신기술과 매체문화의 발달은 우리의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관계를 변형시킬 것이다. 벌써부터 학교교사들은 학생들의 언어관계의 변화에서 어린이 방의 카세트 문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록문화의 퇴조와 변천이 예고되기도 하는데, 이와같은 발전에 대해 문예학에서는 구전문학, 기록문학, 문학과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강좌개설등 새로운 연구 영역의 개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상 5가지 점으로 개요를 적어본 것처럼, 래머르트의 요구를 심하게 받아드리는 인문학자들에게는 인문과학이란 補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과학의 과제를 우리사회의 형성에 실제적 기여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긴하나 충분치는 않다고 지적하면서, 인문학은 이 과제를 넘어서 지속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비판(批判)”의 과제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독문학자인 한스 페터 헤르만(Hans Peter Herrmann)⁴⁾은 1988년에 행한 “인문학의 철폐?”라는 강연에서 인문학의 과제와 기능을 비판(批判)으로 역설하며 인문학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4) Hans Peter Herrmann: “Abschaffung der Geisteswissenschaften ?” In: Neue Technologien- Neue Gesellschaft. Hrsg. von G.Böhmer u.a., Freiburg i.Br. (Dresamverlag) 1988, S.171-195

3. “비판(批判)학문”으로서 인문과학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비판의 의미를 현 사회의 재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사회를 옳은 것으로 변화 시키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만큼 행동력있는 역사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와같은 요구가 옳다고 하더라도, 동의와 이해를 구하기는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와같은 원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목표와 요구에 한 걸음씩 접근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헤르만은 규정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과제란 인문과학의 실습속에서 제기되는 방법상의 과제를 지칭하고, 비판적 학문을 노동분화의 3가지 형식의 비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 역사, 이론과 실제, 사회와 자연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문학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문예학이 취급하는 문학은 과거이든 현재이든 역사적으로 규정된 형식속에서 인간의 자기이해의 형식과 공동생활의 형식을 시험한다고 본다. 문학은 각기 무엇이 자신이 상상하는 자기표현의 형식이고, 공동생활의 형식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고, 그들의 사상과 표상들이 그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와 어떤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가 연구하는 문학은, 그것이 과거의 문학이든, 현재의 문학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척도가 된다. 즉 우리 사회가 이를 가능케 하든, 방해해 하든 자기실현과 공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와같은 척도들을 필요로 하고 그척도에 따라 평가되고 비판되어야 하며, 우리사회를 그냥 가는데로 내버려 두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척도는 인간의 생존의 역사적 모습들과의 대결속에서 발전할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문학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고양되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발전할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모습들은 마치 그속에 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간단히 진승되어서는 안되고 스스로 묻고 비판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항시 그 모습들은 사회에 대하여 이중적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사회의 권력구조, 업무분할, 계층의 차이 등을 비판하거나, 동시에 이를 시인하고 은폐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는 문예학은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전통을 깨뜨린다. 그리고 고양된 문학적 형상체와 잔혹한 현실역사의 분리를 깨뜨린다. 19세기의 인문학은 이와같은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렸다. 그들이 補裨이론을 고수하는 것은 이와같은 분리가 오늘 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인문학은 이와같은 분열을 비판해야 한다. 고유의 정신적 법칙을 따르는 인간의 정신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문과학의 탄생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18세기, 19세기의 이상철학과 세계관들은 통합되어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분리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과학은 그의 유래와 함께 그 명칭을 비판하고 극복하여야 마땅하고 인문과학을 촉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괄적으로 사회과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헤르만은 주장하고 있다.

그와같은 비판적 사회과학은 그렇게 되면 다른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지극히 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이론과 실제의 연구분업을 깨뜨릴 것이다. 인문학의 대상과 관련해서 그와같은 이론과 실제의 분리를 지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거나 학자로서의 우리의 자체이해와 관련하여 생겨지는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선 대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인간의 정신에 의해 생산 된것중에는 사회적 실제의 모멘트가 아닌 것이 별로 없다. 문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그형식이나 내용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추구도, 개인의 고통에 대한 탄식도 현존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보다 나은 다른 환경을 동경하거나, 보다 나은 상태가 도래하기를 바라거나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는 내용이다.

이와같이 문학의 실제적 성격을 주장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보편적으로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자명함을 학문적 검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는 까다롭고도 복잡하다. 거기에 참여한자들도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거나 잘못 의식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려온 인문학의 모든 전통을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연구결과를 끊임없이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인문학의 과제 부여를 도통 심각한 것으로 받아 드린 것이 이제 겨우 20년 밖에 되지 않는다. 1965년 전에는 이 문제는 이 분야의 대표자들의 확일적인 판결에 맡겨 졌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의 분리에 대한 비판은 인문과학의 대상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학문과 이에 종사하는 학자들 자체의 연구와 자체이해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다. 학자로서의 우리의 직업은 실제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된 덕을 입고 있지만 학생들은 한때 흠볼트가 학문의 본질이라고 칭송했던 이와같은 격리를 오늘날 자유롭게 연구할수 있는 행복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의 입장은 다르다. 학자로서 우리의 자아의식은 우리가 이론적 학문을 촉진시키는 것이지, 사회적 실습을 촉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이론과 실제의 분리는 방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문내적이고 대학 내적인 공간을 사회적 과당화와 결사의 직접적 요구로부터 해방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내부에서는 새롭고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수 있고 토론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밖이라면 즉시 해당 집단의 권력의 지원을 받은 저항에 부딪치고 그렇게 됨으로서 저지될수도 있는 새롭고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수 있고 토론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이와같은 상대적 자유는 사회적 연관으로부터 총체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르트 브레히트(Bert Brecht)는 예술에 대하여 “ 예술은 독립적이다. 그러나 자립적이지는 않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학문에도 해당된다. 학문은 항상 사회적으로 규약이 정해 진다. 학문의 기관들은 사회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의해서 비용이 지불되며, 그의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학문의 방법까지도 진공의 공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화적, 지적 풍토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식은 학문적 정확성, 성실성, 학문의 방법론상의 소위 객관성에 대한 요구는 개별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문이란 우리사회와의 실제적 행동의 연관성이나 책임상의 연관성 밖에 위치하는 독자적 이론영역이라는 환상을 막아준다. 이와같은 인식은 비로서 학문의 이론형성과 학문적 인식의 획득이 학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파악하게 한다. 즉 학문이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사상과의 논쟁이요, 그사상의 확인이거나 비판인 것이다. 이와같은 확인이나 비판은 아직은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지배하는 사상의 확인이나 비판은 언제나 학문인 것이다. 그리고 지배하는 사상은 곧 지배하는 사람들의 사상인 것이다.

이와같은 의미의 비판적 사회학문은 정신과 역사의, 이론과 실제의 분리는 극복할뿐만이 아니라 또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분리도 지양하는 작업을 한다. 시민사회의 탄생은 모든 이전의 사회의 형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겨났고, 자연으로부터 해방이거나, 자연의 구속에대한 극복과 관계가 있다. 자연을 신호로 우리 사회가 15/16세기 이래로 비록 위기로 동요를 겪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과정속에서 역사적인 풍요를 쌓아올렸다. 자연지배를 신호로 인간사회는 역사적으로 황폐화를 당하기도 했고,오늘날엔 무절제한 자연지배의 과정이 우리의 생활근거를 파괴하려고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연지배의 그늘속에서 근대사회의 탄생과 함께 자연에 대한관계의 변화가 생겼다. 우리는 그것을 미학적 관계라고 부른다. 문학, 음악, 예술은 그와같은 미학적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문과학은 이와같은 예술관계와의 논쟁에서 학문적 대상에 접근할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였다. 이 통로는 자연과학과 반대로 인식의 과정에서 인식하는 주체의 주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시키거나 그를 주제로 삼고 있다.

사회과학은 학문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루거나,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 주체와 주체, 주체와 다른 주체 그리고 주체와 주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적 세계와의 관계를 다룬다. 이와같은 다른 대상관계는 결과적으로 자기실현과 도덕에 대한 질문, 자신의 삶과

사회적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공동생활의 규칙에 대한 물음, 개인의 책임에 대한 물음등이 사회과학에 항상 함께 자리를 잡게 했다. 이와같은 물음들이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에서는 비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회과학의 대상연관에는 늘 내포되어 있다.

4. 결 어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이 불가결한 학문임을 한결같이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들이지만, 요점은 경쟁 논리를 내세워 자연과학에 대한 성찰없는 확신을 지양하고, 인문학이 지니는 성찰의 역할을 살려서 과학과 성찰이 통합되어, 균형있게 발전하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보화 되면 될 수록 인문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진다는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듯 싶다.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도 미래에 대비한 청소년교육의 핵심과제로 인문학과 예술과목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인 교육에 필수적이며, 창조력과 비판적 사고를 계발하는데 인문학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은 이제 체언(贅言)에 불과하다. 최근 조선일보는 10월 3일자 사설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는 경제 되살리기이고, 거창하게는 21세기 준비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그와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제2의 건국운동”은 단순한 경제 제1주의에만 머무를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실천강령이라면서, 시대정신을 산업화시대의 압축성장 철학을 뛰어 넘는 균형잡힌 생명회복, 인간회복의 철학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잘 살아보세”를 한 단계 뛰어넘는 “바르게 살아보세” 정신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 강령으로서 “바른 규칙, 바른 예절, 바른 제도를 확립해서 그것을 바르게 집행하는 기풍을 세우는 것”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바르게”란 법과 질서를 엄하게 지키고, 선진 시민의식과 예의를 생활화하는 것이며, “페어 플레이” 즉 모두가 거역할수 없는 보편타당한 규칙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인문과학은 이와같이 제기된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게 바르게 살려는 기본정신을 진작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